

발행처 :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미술관 * 발행인 : 설원기 * 편집인 : 최은주 * 편집장 : 김종길 * 발행일자 : 2018. 08.17

주소: 16614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로 166 경기상상캠퍼스 청년1981 2층 NPC CAMP // 홈페이지: <http://ggma.ggcf.kr> // 이메일: ggcf1000@gmail.com // 인스타그램: @gyeonggi1018.2018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gyeonggi1018.2018> // 전화: 031-296-1833~1840 // 팩스: 031-296-1766



김광우, 자연+인간(우리의 미래 I), 2018, 오브제 Kim, KwangWoo, nature+human(our future I), 2018, Object
<자연+인간>은 인류와 문명의 관계성과 이질성에 대한 끊임없는 물음과 사유로 작품세계를 완성해 가는 원로조각가 김광우의 신작이다. 이 구형(舊型) 지프 트럭은 한국전쟁 이후 미군위문협회 공연단 차량으로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하는데, 공연단에는 마릴린 먼로, 엘비스 프레슬리, 냇 킹 콜 등이 있었다. 작가는 엘비스 프레슬리(Elvis Presley, 1935~1977)가 탑승했을 것이라 전한다. 그는 트럭의 역사적 의미에 DMZ 가시철조망을 더해서 전체 매력과 상징을 증폭시킨다. 오브제의 시간과 역사성, 냉전의 상처와 분단 한국사회를 꿰뚫으면서 우리 근현대사를 통찰하도록 이끄는 것이다.

경기 아카이브_기획,

2018 경기천년 도큐페스타 “경기 아카이브_지금,”
김종길_수석 큐레이터

02

문학_쓰고,

문학지리로 본 경기문학, 그리고 ‘분단’(I)
최운정_큐레이터
『장소의 기억을 꺼내다』를 읽다
장석주_시인, 문학평론가

04

시각예술_그리고,

소집단 활동 아카이브_이역배 미술운동 연대기
제공 : 이역배
정리 : 김종길_수석 큐레이터

06

문화재_홀리고,

문화원형의 천년 경기문화
조두호_큐레이터

08

사상 및 총서_사랑하고,

다양성과 개방성의 포용, 역동의 경기(京機)로
김성환_경기문화재단 정책실장

09

문화예술교육_배우고,

문화예술교육 아카이브_[DVD]
이것이 미래교육이다 10부작
제공 : 임은옥

10

기록자료_모으고,

문화예술교육교재
제공 : 임은옥

10

경기인_살고,

[작가노트] 경기도의 아이들
김윤섭_사진작가

11

경기 천년

경기천년은 ‘경기(京畿)’라는 이름이 정해진지 천년이 된 것을 말한다. 『고려사』 지리지 왕경 개성부 연혁에 따르면 고려 1018년 현종 9년에 행정제도를 정비하면서 당시 고려의 수도인 개경과 그 주변의 12개 군과 현을 묶어서 ‘경기’라고 불렀다. 2018년은 그 이름이 탄생한지 천년이 되는 해다. 또 1018년은 경기제(京畿制)의 시행과 함께 경기문화(京畿文化)가 태동한 해다.

경기천년 도큐페스타

‘경기천년 도큐페스타’는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이 경기천년을 맞아 기획한 경기천년사업의 대표 브랜드다. 경기천년의 과거와 현재를 기억하고 기록하는 동시에 미래천년을 준비하는 종합예술 브랜드로, 경기 아카이브전과 경기천년 대축제, 도민정책 상상플랫폼 등 다양한 사업을 아우르는 명칭이다.

2018 경기천년 도큐페스타 : <경기 아카이브_지금,> 전시구성

“경기천년의 역사, 예술, 기록, 기억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첫 도큐페스타”



서용선, 백성들의 생각, 1991, 캔버스에 아크릴, 194×517cm

- 도서관(-)+기록관(Archi-)+미술관(-eum), 라키비움(larchiveum) 공간구성
- 역사, 예술, 민속, 사람, 지역, 문화재, 철학, 화집, 옛 지도 등 책 2천여 권
- 근대 책 자료 100여권, 근대 대중음악 자료 20여권, 문학 초판본 작품 100여권 발굴
- 문학 작품 500여권 외 육필 원고 전시
- 2017년~2018 경기도 기록 아카이브 사진 1천여 점, 주요 사진작가 작품 전시
- 회화, 사진, 조각, 영상, 설치 등 미술가 150명(팀 포함)의 작품 300여점 전시
- 1980년대 이후 미술 소집단 활동 자료 1천여 건 전시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이 주최하고 경기도미술관이 주관하는 <경기 아카이브_지금,>전이 9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경기상상캠퍼스에서 열린다. 경기상상캠퍼스는 수원역 뒤 옛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수원시 권선구 서둔로 166) 땅 일부를 경기도가 생활문화와 청년문화가 혼합된 복합문화공간으로 문화재생하고 있는 곳이다. ‘경기(京畿)’라는 이름을 쓴지 천년을 기념하기 위해 경기도미술관 특별전으로 기획한 이 전시는 경기도의 다양한 문화와 창조적 예술을 한 자리에서 살필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또한 경기도 문화정체성을 ‘신(新) 경기천년의궤’로 집대성하기 위해 방대한 문화예술자료를 조사, 발굴했다. ‘의궤(儀軌)’는 조선시대 국가의 주요 행사를 그림과 글로 정리한 책이다. 그래서 이번 전시도 그런 관점으로 ‘경기 아카이브 북’을 제작한다.

전시주제 ‘지금,’은 경기도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함축하는 개념이다. ‘지금’은 찰나(刹那)로서의 순간이다. 찰나의 뜻은 “어떤 일이나 상태가 이루어지는 바로 그때”를 말하고, 불교에서는 모든 게 1찰나마다 생겼다가 사라지고, 사라졌다가 생기면서 나아간다고 말한다. 찰나의 순간이 바로 ‘지금,’여기’인 것이다. 경기천년의 ‘천년’도 그 찰나의 모든 순간들이다. 그 순간을 넘어야 경기 미래가 열린다. 그러니 잠깐 그 순간의 실체를 ‘섬표(,)’로 살펴보는 것이 이번 전시다.

전시구성은 “1)문학 분야_쓰고, 2)시각예술 분야_그리고, 3)문화재 분야_홀리고, 4)사상 및 충서 분야_사랑하고, 5)공연 및 축제 분야_놀고, 6)기록자료 분야_모으고, 7)자연, 환경 분야_호르고, 8)‘경기인’ 분야_살고,”로 짜여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Part 1 ■■■ 문학 분야_쓰고,

- 『경기 문학지도(1,2)』, 『장소의 기억을 꺼내다 : 경기도의 문학지리』, 『장소의 탄생 : 우리시의 문학지리학』을 활용해 경기도 문학지리를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도록 함
- 31개 시군의 주요 문학가 100여명의 작품집 수집해 입체적 전시공간을 구성함
- 경기문인협회, 경기문학위원회 작가 작품집, 기획출간 자료도 조사함
- 육필원고, 작가 인물사진, 인터뷰 영상 자료 조사, 발굴함

Part 2 ■■■ 시각예술 분야_그리고,

- 회화, 조각, 사진, 영상, 미디어, 설치 등 150명 미술가의 작품 300여점 섭외함
- 참여 작가 도록과 경기 예술사 책으로 ‘아티스트 아카이브’ 공간을 별도 구성함
- 경기대안공간네트워크 6곳의 15년 기록 자료를 전시함
- 경기현대미술을 조망할 수 있는 소집단 활동 자료를 조사, 발굴해 전시함

Part 3 ■■■ 문화재 분야_홀리고,

- 2017년 12월에 경기도가 발간한 『경기도문화재총람Ⅰ·Ⅱ』을 적극 활용함
- 경기도무형문화재(기능/예능) 기록 자료를 조사해 전시로 보여줌
- 경기도무형문화재총연합회 사진, 도록, 영상 자료를 전시함
- ‘경기도의 굿’을 시연하고, 굿그림, 굿도구, 불화(佛畵) 등을 전시함

Part 4 ■■■ 사상 및 충서 분야_사랑하고,

- 경기도 대표인물 평전 발간사업과 경기학연구센터 자료, 『기전문화예술 충서』, 『실학연구총서』를 비롯해, 경기도 사상을 살필 수 있는 다른 학술도서를 조사하고 발굴한 뒤, 각 책마다 ‘그물코 책갈피’를 만들어 도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
- ※ ‘사랑하다’의 옛말 ‘스랑하다’는 ‘생각하다’, ‘사유하다’의 뜻을 가진 오래된 우리말임.
- “경기천년 빛나는 정신문화 경기그레이트 북스 100선”도 소개(문화사업팀 연계)

Part 5 ■■■ 공연 및 축제 분야_놀고,

- 경기도 15대 축제 자료(사진·영상·인쇄물 등)를 전시함
- 공연, 축제 분야의 연구 자료로 21세기 새 경기문화의 정체성을 볼 수 있도록 함
- 수원연극사 자료를 비롯해, 경기 근현대 연극사 분야 자료를 전시함

Part 6 ■■■ 기록자료 분야_모으고,

- 2017~2018년 경기천년사업 과정아카이브 자료
- 근대 대중음악 아카이브 자료(22점), 근대 목판화 관련 책 자료(100권), 문학 관련 책 초판본 100여권
- 경기북부마을 아카이브 보고서, 경기지역 문화예술 프로젝트 자료
- 경기문화재단 박물관·미술관 자료,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사)한국예총 경기도연합회, (사)경기민예총, (사)경기도박물관협회 소속관 자료
- 경기도 관련 옛 지도, 『서울 경기지역 지명 및 방언』, 경기문화지도 등 기록자료

Part 7 ■■■ 자연, 환경 분야_호르고,

- 경기도의 산, 강, 평야, 섬, 만, 바다, DMZ, 도시 기록자료
- ※ 2017~2018 기록아카이브 사진 및 영상 기록물 포함

Part 8 ■■■ ‘경기인’ 분야_살고,

- 경기도에 살았던, 살고 있는, 지금 여기의 ‘경기인’ 전시
- ※ 전시장에 ‘미디어 타임캡슐형’ 아카이브 기기 설치 > 관객 참여의 실시간 업데이트

그리고, 경기지역 소집단 활동과 아트 프로젝트 아카이브 대상은 다음과 같다. 프로젝트/소집단/공간/학교/기관 > 활동연도 > 기획자/교장/예술감독 > 기록자료 > 활동지역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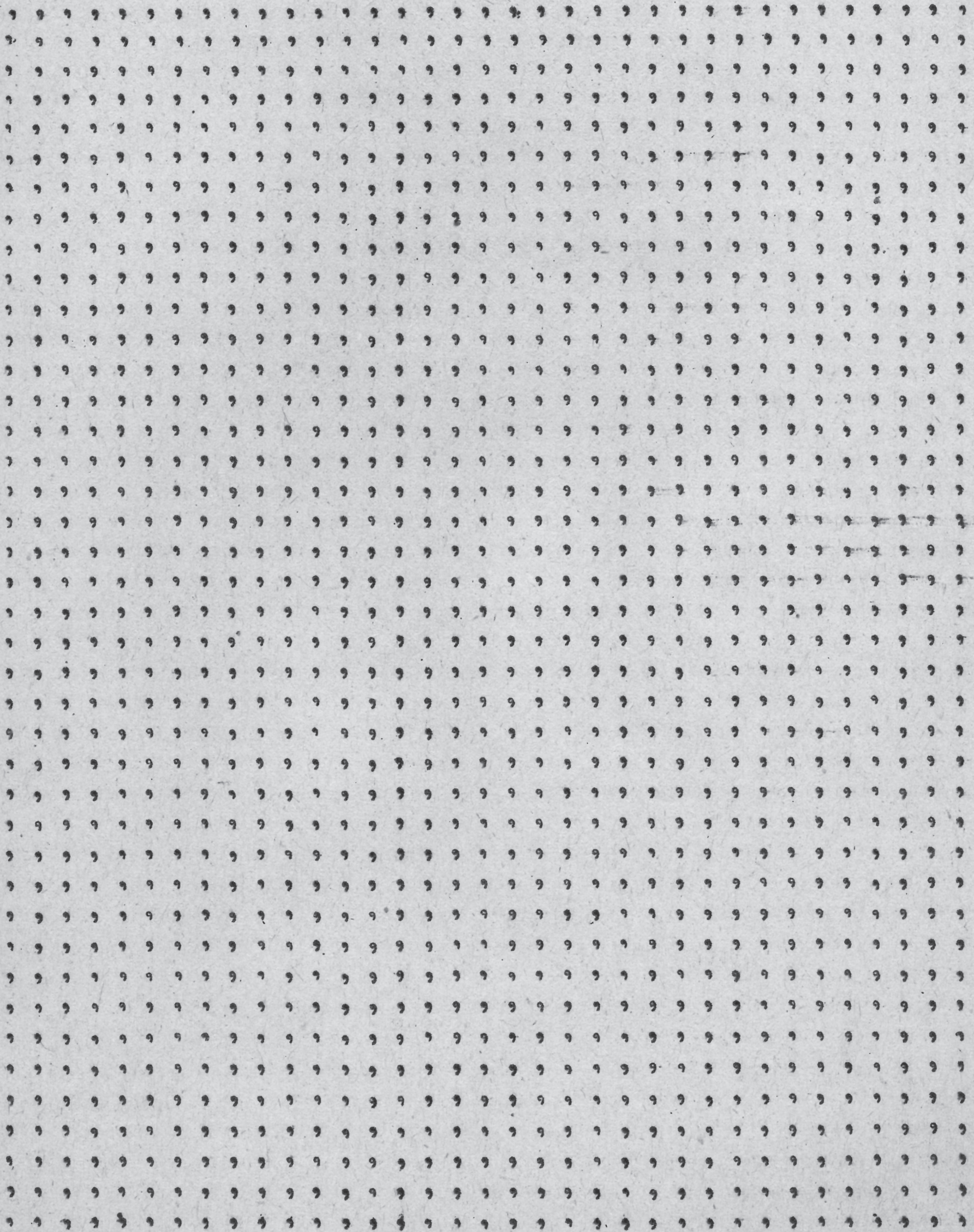
- 황금산 프로젝트_2015_예술감독 정기현_화성시
- 우리들의 땅_1989~99_이억배 작가 소장 자료_안양시
- 그림사랑동우회 우리그림_1987년 창립_이억배 작가 소장 자료_안양시
- 컴아트 그룹_1990~96_이경근, 홍오봉, 김석환, 황민수, 허중수, 최병기, 윤진섭 등_기록자료_작가/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소장 자료_수원시
- 슈룸_1970년대 후반~현재_김성배, 이윤숙, 전원길 등_기록자료_작가/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소장 자료_수원시
- 포천 도롱이집 이주 프로젝트_2010~2013_예술감독 박이창식_문화살롱 공 소장 자료_포천시
- 안정리 프로젝트_2013~2015_경기문화재단_기록자료_지역문화팀 조지연
- 마을재생 프로젝트 문화마실_2016~2018_예술감독 한문희_2016~2018_수원시
- 인계시장 프로젝트_2011_기획 김월식_무늬만 커뮤니티 소장 자료_수원시
- 마석동네페스티벌_2012~2014_기획 공공미술삼거리, 마석이주극장, 믹스라이스_믹스라이스 소장자료_남양주시
- 겨울 대성리전+바깥미술회_1981~현재_바깥미술회

소장 자료_가평군, 양평군

- 동두천 프로젝트_2007_기획 김희진_기록자료, 사진, 영상 등_동두천시
- 시점시점, 포인트, 새벽_1980년대_이억배, 권용택, 수원미술인협회 소장 자료_수원시
- 미술동인 두령_1987~94_정정엽
- 아트로드 77_2009~현재_아트팩토리 황성욱 디렉터 소장 자료_파주시
- 밀머리학교_2000년대_교장 박찬국 소장 자료_여주시
- 대안문화학교 달팽이_2000년대_교장 이기원 소장 자료_안성시
- 파주타이포그래피학교_2013~현재_날개 안상수_파주시
-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_2001~현재(총9회)_기록자료_한국도자재단_이천시
-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_1998~현재(총20회)_기록자료_이천시
- 목리창작촌_2002~07_이윤기, 이윤엽, 최춘일, 임승천, 천성명, 화성공장 등_화성시
- 창문아트센터_2001~현재_원장 박석윤_화성시
- 에이블아트센터_2000~현재_이사장 장병용_활동자료_수원시
- 4·16지역전시관_2014~현재_4.16가족협의회 소속_기록자료_안산시
- 경기북부마을 아카이브 보고서_2017_이성민, 김진주, 진나래_경기북부사업단
- 경기대안공간네트워크_2003~현재_대안공간 눈(대표 이윤숙/수원), 커뮤니티 스페이스 리트머스(대표 송지은/안산), 대안미술공간 소나무(대표 최예문/안성), 문화살롱 공(대표 박이창식/의정부), 아트포럼 리(대표 이훈희/부천), 보충대리공간 스톤엔워터(박찬웅/안양)_활동자료_경기도
- 대추리 현장예술 아카이브_2004~07_대추리 현장예술 백서 등_평택시
-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_2005~현재_기록자료, 사진, 영상 등_안양문화예술재단_안양시
- 평화의 조각보 프로젝트_2007~2010_기획 최예문_안성시
- 성남프로젝트_1998_박찬경, 김태현, 임흥순, 조지은 등_성남시
- 수원화성국제사진축제_2014~현재_예술감독 강재욱_수원시
- 두물머리 문화제_2009~12_기록자료, 사진, 영화 [‘두물머리’(서동일 감독)] 등_양평군
- 갤러리 소머리국밥_2009~현재_활동 자료_양평군
- 스페이스 빔_2002~현재_민운기_인천광역시
- 임시공간_2016~현재_채은영_인천광역시
- 고경표_1980~90년대 인천 메탈음악 아카이브_인천광역시
- 인천아트플랫폼_인천개항박물관_인천광역시

특별 섹션과 시연

- 경기감영도 영인본_경기도
- 연등 조각_전영일 공방
- 초보학교 거리교실_경기서울권 청년 예술가
- 경기도 굿 시연_화성재민청보존회
- 우현 고유섭(1905~1944) 자료_황수영 선생이 엮은 『한국미술사와 미학논고』, 『조선화론집』, 『한국미술문화사 논총』, 『송도의 고적』 외 『고유섭 전집』 등



<< 최 춘 일 >>

문학지리로 본 경기문학, 그리고 ‘분단’(I)

최윤정 | 큐레이터(문학+회화+사진)

<경기아카이브_지금,>의 ‘문학_쓰고’는 경기문학인 100인의 대표작과 31개 시·군에 거주하는 작가들의 작품, 경기의제를 표현한 작품들, 그리고 경기문인협회와 경기문학위원회의 등단작가 작품집으로 구성된다. 전시구성을 위한 첫 목록은 경기문화재단이 기전문화예술총서 3권과 4권으로 2000년에 기획한 『경기문학지도1,2』를 토대로 작성되었다.

『경기문학지도1,2』는 소설가 김남일, 시인 오봉옥, 시인 용환신, 소설가 이성아, 시인 이영진, 소설가 이인휘, 시인 홍일선에 의해 1년에 걸친 현장답사와 자료조사로 제작했고, 그래서 이번 전시를 위해 당시 기획과 집필에 참여했던 소설가 김남일 선생의 자문을 받았다. 또한 시인 이덕규, 시인 박설희, 시인 윤석정, 문학평론가 고영직 선생을 기획자문위원으로 모시고 작가들의 지역적 분포와 작품의 무대가 된 경기도를 살폈다.

기획자문회의는 총 11차에 걸쳐서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경기도는 물론, 한국작가회의, 한국문인협회, 현대문학회 등의 협조를 받아 귀한 자료를 섭외할 수 있었다. 또한 경기현대사의 침묵한 사건이었던 세월호, 매항리, 대추리·도두리를 주제로 다룬 문학 작품들을 별도 섹션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총 500여점에 이르는 시집, 소설집, 작품집은

경기문학사를 한 눈에 살필 수 있는 길라잡이가 될 터인데, 그 중에는 작가들의 육필원고와 초판본이 포함되어 있어 전시를 감상하는 교감의 체계가 흥미롭게 전개되면서 그 작품들이 탄생했던 시대의 디자인 감각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시대적으로는 20세기 이후의 식민지-8·15해방-6.25전쟁-4·19혁명-근대국가 형성-도시화·산업화·민주화의 전개과정에서 활동한 작가들과 작품들을 다룬다. 그 시기는 크게 근대문학과 분단문학의 시기일 것이다. 20세기 이전의 경기문학은 ‘사상·학술·사랑하고,’에서 만나볼 수 있다,

경기문학에는 과거 경기도였으나 분단 이후 북한의 황해도가 되어버린 개성시, 개풍군, 장단군도 포함시켰다. 그렇게 해야만 근현대 이후의 경기문학 지리가 완성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즉, 이렇게 분류한 문학지리는 해방 이전과 이후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경기도를 폭넓게 바라볼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다.

해방이후 작가들은 ‘분단’으로 파생된 상황들과 그로부터 야기된 소재들에 접근함으로써 삶의 진솔한 이야기들을 담아낼 수 있었고, 그것은 경기현대문학의 중요한 특질을 이루고 있다. 그 특질의 일부를 소개한다.

장사 수완이 뛰어났던 송도의 상인들을 ‘송상’이라 불렀다. 송상은 또한 개성상인의 다른 이름이다. 고려와

조선에서 개성은 사업의 중심지였다. 황석영(1943~)의 대하소설 『장길산』은 개성을 주 무대로 송상들의 활약을 세밀하게 그렸다. 기초 사료를 토대로 “그 위에 역사적 상상력을 보태어 거대한 서사의 장강을 이루어낸 소설”이라 평가받는다. 이번 전시에 그 작품집과 육필원고가 나온다.

개풍 출신 박완서(1931-2011)는 소설 『미망』에서 개성의 부호인 거상 전처만 일가의 5대에 걸친 가족사를 그렸고, 그와 같은 고향인 송병수(1932-2009)는 1957년에 전쟁 피해자들의 삶을 그린 「쏘리킴」을 발표했고 이후 한국전쟁에서 멀지 않은 주제로 그의 문학세계를 구축했다.

경기문학에서 분단문제는 비극의 역사, 민족사의 과제, 그리고 개인의 실존을 다층적으로 드러내고 질문하는 방식으로 창작방향을 이끌었다. 1950년대 전후문학을 거쳐 의정부, 평택, 송탄, 동두천, 파주 등 기지촌을 무대로 한 ‘기지촌문학’ 역시도 그 흐름에서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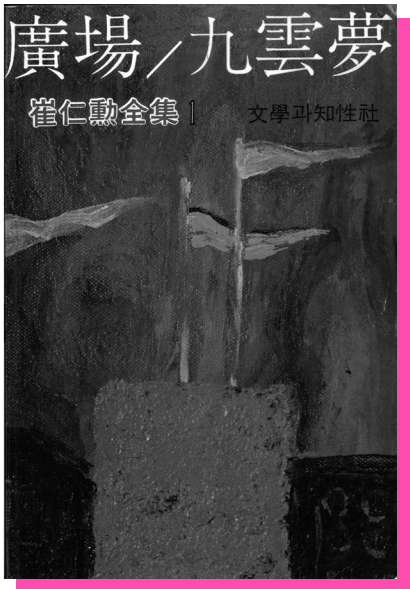
이번 전시를 준비하면서 마치 찰나의 깨달음과도 같이 경기도를 단 한 번에 인지할 수 있었던 열셋말 중의 하나는 바로 ‘분단’이었다. 한반도의 중심을 가로지르는 휴전선, 38선, DMZ의 지정학적 위치는 물론이거니와, 생소한 개성시, 개풍군, 장단군을 경기문학사에서 마주하는 탓이기도 할 것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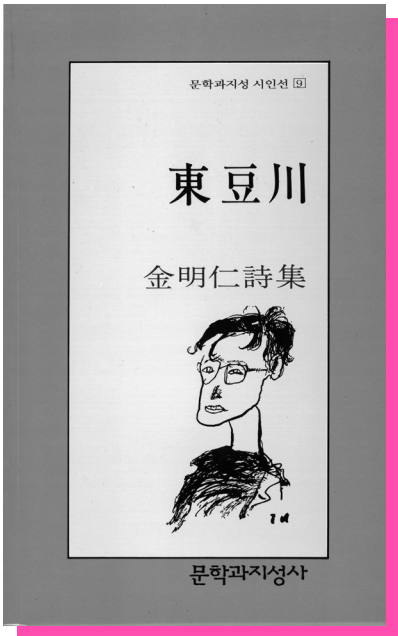
익숙한 것은 잘 보이지 않고 마음에 들어오지도 않는 것일까? 말 하나를 덧붙이면, 마침 <경기아카이브_지금,>이 펼쳐지는 경기상상캠퍼스 앞 별터 마을에 6.25전쟁 때 터키군이 640여명의 전쟁고아를 돌보았던 양카라 고아원 터(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소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 수원에 실향민 분포가 높다는 말에 틈틈이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고 있다. 그런 일들이 사실 전시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을 테지만, 의도치 않게 스스로 무언가에 깊이 매료되고 점진하는 모양새이다. 그렇게 내 삶은 하나의 맥락어가 몸에 새겨지는 순간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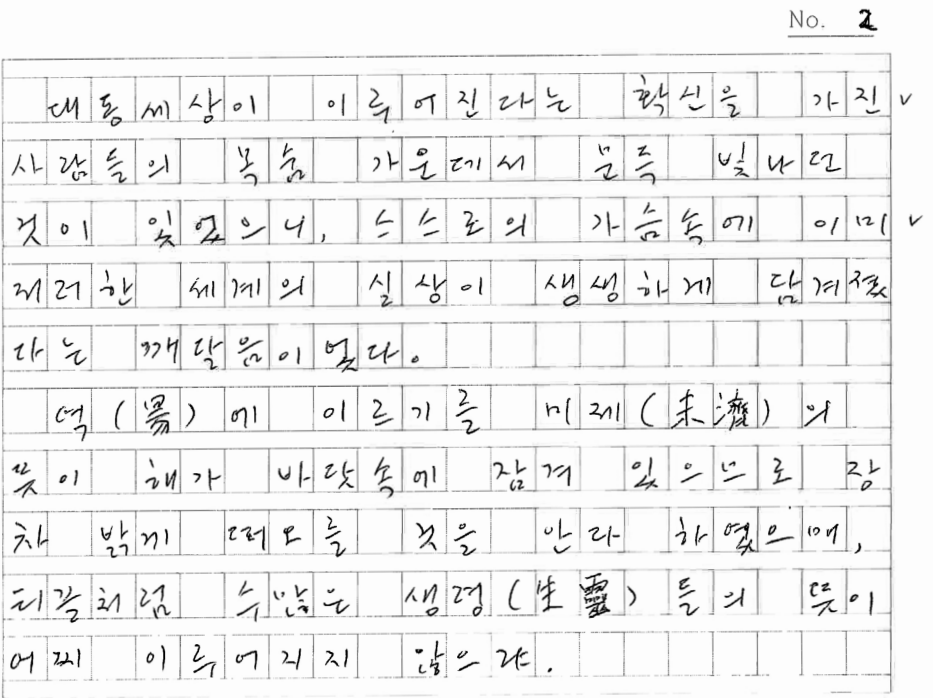
황석영, 대하소설 장길산 전집 부분



최인훈, 광장·구운몽, 문학과지성사, 2005.
초판발행은 1976년 8월 25일



김명인 시집, 동두천, 문학과지성사, 2013.
초판발행 1979년 10월 2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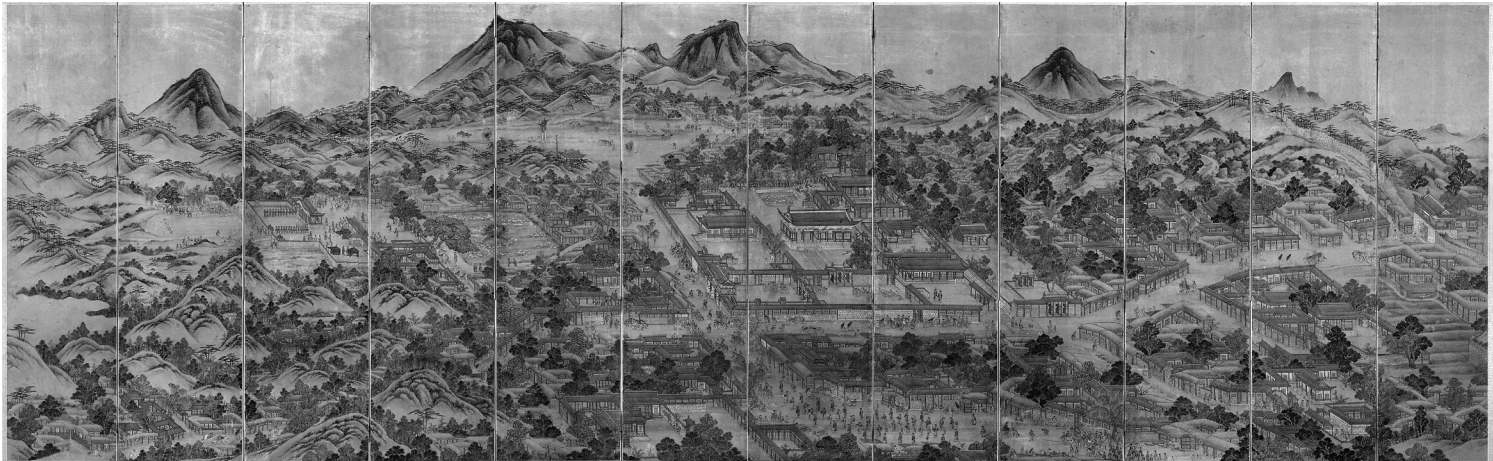


소설가 황석영 작가의 육필원고, 대하장편소설 장길산의 마지막 문장이다.1,2

— 대하 장편 소설 「장길산」 대판본의 끝 문장이니 —

『장소의 기억을 꺼내다』를 읽다

장석주 | 시인, 문화평론가



1. 경기감영도(京畿監營圖) 종이에 채색, 135.8×442.2cm, 19세기 전반, 보물 제1394호, 호암미술관 소장

‘문학_쓰고’의 주제로 묶는 경기문학은 문학지리학(Literary geography)을 바탕에 두고 기획되었다. 경기문화재단은 2007년 ‘새로운 예술’ 시리즈의 출판물을 펴냈는데, 그 중 두 번째 책이 장석주의 『장소의 기억을 꺼내다-경기도의 문학지리』(사회평론, 2007)이다. 경기도미술관은 ‘2015 경기도미술관 특별기획전’ <경기팔경과 구곡>에서 문학지리의 개념을 살폈고, 경기천년 도큐페스타의 일환으로 기획되는 <경기 아카이브_지금,>도 그 개념을 사용하였다. 문학지리학은 넓은 의미에서 예술지리학으로 읽혀도 무방할 것이어서 이번 전시 전체의 ‘바탕개념’이 되었다. 책에서 주요 개념을 발췌하여 싣는다.

ⅢⅢ 왜 문학지리인가

사람은 누구나 땅과 더불어 산다. 땅에 산다는 것은 어딘가에 거주를 한다는 뜻이다. 발을 딛고 숨을 쉬며, 몸을 부려 삶의 터전을 일구고 사는 그곳이 ‘낙원’이든 ‘지옥’이든 ‘무릉도원’이든 거주지라는 하나의 장소다. 장소는 더도 덜도 아닌 엄연한 실존의 조건이요, 토대다. 장소는 삶의 기반이자 그것에 불가피하게 연루되는 의식이며, 사람의 현존 그 자체다. 그 기반 위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주체로서 정립한다. 비약하면, 사람은 장소를 가짐으로써 비로소 사람이다. ↪ 9쪽

ⅢⅢ 문학지리학의 범주

“산천은 의구한데 인걸은 간 데 없네”라는 옛 시인의 시는 잘못된 정보를 담고 있다. 사람이 바뀌면 당연히 땅도 바뀐다. 거기 살던 인걸이 사라지고 새로운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산다면, 그 산천도 따라서 변한다. 땅이 바뀌고 그에 따라 사람들의 살림 형편과 마음도 변하는 게 정한 이치다. 사람과 땅은 형세, 흙의 빛깔, 초목의 우거짐, 물의 들고남, 취락의 모양이 총체적으로 어우러진 장소-세계와 교감하고, 그때 파생하는 생기와 감응을 제 것으로 삼을 때 장소-세계는 주체의 내면을 규정하는 외연으로 작동한다. 옛 사람들은 지형지세가 순하고 풍광이 수려한 곳에서 인재가 난다고 믿었다. 산천이 사람의 심성을 규정하고, 참 사람을 만든다는 믿음에서 산수인물양육론(山水人物養育論)이 나온 것이다.

↪ 1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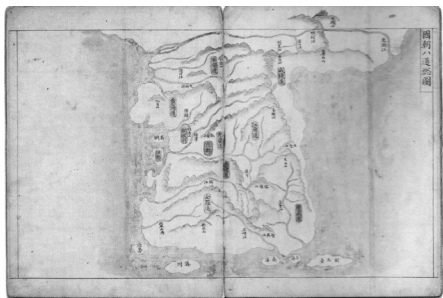
사람이 장소-세계[땅과 자연]를 만들고, 장소-세계는 사람을 낳고 기른다는 믿음에서 나온 문학지리학은 문학과 지리가 경계를 넘어 만나는 개념이다. 모든 문학작품들은 그것에 영감을 주고 상상의 살과 피를 대준 장소를 머금고 있다. 문학지리학은 특정 지역에서 꽃핀 문학적 자산을 살피고 그 지리의 위치, 지형, 인심, 풍속, 인물, 기후, 생태, 역사, 지역의 방언문화, 공동체의 체험 등을 전체로 아우르며 그 뜻을 묻는다. 어떤 특정 장소-세계가 문학 상상력에 어떻게 상상의 살과 피를 만들고, 미학적 숨결을 불어넣었는가를 따지고 캐는 것은 삶을 의미 있게 살아내려는 노력에 수렴된다. 산다는 것은 행위와 의도의 중심점으로서 장소들을 겪어낸다는 것이다. ↪ 21쪽

ⅢⅢ 장소로서의 고향

시인이 “모란꽃 이루는 하얀 해으름 / 강을 건너는 청모시 웃고름 / 天桃山 / 수정그늘 / 어려 보랏빛 / 모란꽃 해으름 청모시 웃고름”(박목월, <모란여정>)라고 노래할 때 두드러지는 것은 모란꽃이 이루는 늦은 봄 해진 뒤 보랏빛 산그늘이 내리는 어느 고장의 그윽한 풍경이다. 향토의 한때를 묘사한 이 시에서 알 수 없는 안정감과 더불어 근원적 질서감을 느끼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 우리가 겪은 고향의 모습과 닮은 데서 오는 친밀감 때문이다. 고향은 그곳에서 나고 자란 사람과 별개의 것이 아니다. 고향은 ‘나’의 정체성은 본질이요, 근원인 까닭에 세계를 향해 나가는 출발점이고, 외부로 뻗는 ‘나’라는 존재의 시원(始原)이다. 이렇듯 문학들은 그 장소들에 뿌리를 내리고 피어나는 꽃이요, 열매다. ↪ 22쪽

ⅢⅢ 장소의 의미와 본질

문학지리학은 문학 작품 속에서 지리적 공간에 대한 경험과 의식이 어떻게 표현되었는가를 살피는 일이다. 1907년 영국의 샤프란이 이 용어를 자신의 저서의 제목에 붙임으로써 처음 세상에 나타난다. 나중에 “지리학적 현상으로서의 문학 작품을 연구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확장하였다. 지리적 공간이라는 용어는 단순히 실재와 인지의 대상인 장소, 혹은 지도상의 공간만을 뜻하지 않는다. 장소는 모든 삶의 발현의 자리며, 이 세계와 어떤 형태로든 관계를 맺고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실체다. 사람은 심오하고 다양하게 분화된 의미의 공간을 경험하면서 살아간다. ↪ 33쪽



4. 조선 후기의 복합지도첩 『동여비고(東輿備考)』 [1책 57장, 보물 제1596호 (2008년 12월 22일 지정)]에 실려 있는 「국조팔도총도(國朝八道總圖)」

옛 지도 명제표

1. 경기감영도(京畿監營圖), 종이에 채색,

135.8×442.2cm, 19세기 전반, 보물 제1394호, 호암미술관 소장

돈의문 밖에 있던 경기 감영과 주변의 모습을 대형 화면에 사실적으로 그렸다. 북악산과 인왕산을 배경으로 경기 감영과 관찰사의 행차 모습, 경기 중영의 군사 훈련 모습, 의주로 통하는 대로와 무악재·영은문·모화관, 주변의 민가, 행인의 모습 등을 위에서 내려다 본 부감법으로 묘사하였다. 오른쪽의 제1쪽 중간에 보이는 문이 돈의문이다.

2. 조선 후기의 복합지도첩 『동여비고(東輿備考)』

[1책 57장, 보물 제1596호 (2008년 12월 22일 지정)]에 실려 있는 「국조팔도총도(國朝八道總圖)」

『동여비고(東輿備考)』는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서 따온 듯하다. 동국의 동(東)자와 『여지승람』의 여(輿)자를 취한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비고(備考)’는 “『동국여지승람』을 이용하는데 참고가 되는 지도”라는 뜻이다. 『동여비고』는 32여 종의 지도를 60면으로 나누어 한 책에 수록했다. 가로는 33cm~68cm이고 세로는 37cm~42cm으로 지도의 크기가 일정하지 않다. 이 책은 일종의 도별도(道別圖)이면서, 군현도(郡縣圖)이기도 하다. 책의 앞쪽에는 역사 지도를 배치했고, 그 뒤에는 「도성도」 등의 특수 지역도 넣었다. 그렇지만 대부분 도별도와 군현도로 되어 있다. 지도의 편찬 시기는 17세기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세 가지다.

첫째, 「도성도」의 내용 중 경회궁(慶熙宮)을 경덕궁(慶德宮)으로, 소의문(昭義門)을 소덕문(昭德門)으로 표기하고 1711년(숙종 37) 북한산에 축조되는 북한산성(北漢山城)의 표시가 없거나 1712년(숙종 38)에 백두산에 세워지는 정계비의 표시가 없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그 이전에 제작되었다.

둘째, 강화도의 돈대(墩臺)가 49개로 되었다는 점이다. 강화도의 돈대는 1678년(숙종 4)에 쌓기 시작하여 1682년(숙종 8)에 49개의 돈대가 완성된 점으로 돈대 완성 이후에 제작되었다.

셋째, 경상도 「북부주현도」에 영양현(英陽縣)이 기록되어 있으나, 순흥부(順興府)는 표시가 없다는 점이다. 영양현은 1681년에 설치되고 순흥부는 세조때 폐지되었다가 1682년에 다시 설치되었다.



3. 한양도성도(漢陽都城圖) 종이에 채색, 128.7×103.2cm, 19세기 전반, 호암미술관 소장



2. 조선 후기의 복합지도첩 『동여비고(東輿備考)』 [1책 57장, 보물 제1596호 (2008년 12월 22일 지정)]에 실려 있는 「경기도좌우주군총도(京畿道左右州郡總圖)」

이런 세 가지의 역사적 사실들을 종합할 때 1682년(숙종 8)에 제작된 것으로 생각된다.

3. 한양도성도(漢陽都城圖), 종이에 채색,

128.7×103.2cm, 19세기 전반, 호암미술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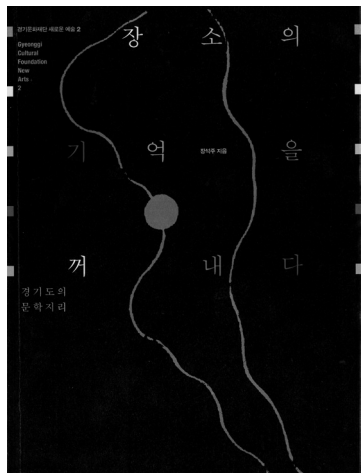
현재까지 전하는 서울 지도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정밀한 지도로 꼽을 수 있는 옛 지도이다. 제목은 ‘한성도(漢城圖)’로 되어 있다. 북쪽의 도봉산을 배경으로 삼각산에서 시작해 남쪽의 한강까지, 그리고 서쪽의 사천(沙川 : 모래내), 동쪽의 중랑천까지, 조선 후기 한성부 행정 구역 전체를 그리고 있는 지도이다. 붉은 색의 길을 파란 색의 산지와 하천이 서로 대비를 이루도록 마치 ‘혈맥(穴脈)’처럼 표시하였다. 큰 길(大路)은 굵은 선으로, 작은 길(小路)은 가는 선으로 표시해서 길의 크기를 나타냈는데, 다른 어느 지도보다도 세밀하게 그렸다.

4. 조선 후기의 복합지도첩 『동여비고(東輿備考)』

[1책 57장, 보물 제1596호 (2008년 12월 22일 지정)]에 실려 있는 「경기도좌우주군총도(京畿道左右州郡總圖)」

조선시대 경기도의 좌도와 우도에 속한 군과 현의 위치를 간략하게 그린 지도이다. 가운데는 수도인 한성을 사각형 모습으로 부각시켜 표시하였다. 고려의 도읍이었던 개성부도 직사각형으로 부각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동람도』의 지도보다 더 소략하다. 산과 땅은 일부 대표적인 것만 그렸고, 물줄기는 분류와 지류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았다. 좌도와 우도의 경계선을 흑선으로 그렸고, 군·현의 이름 옆에는 좌도와 우도의 구분해서 쓰여 있다.

※ 지도 설명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을 참조하여 쉽게 풀어썼다.



장석주, 장소의 기억을 꺼내다 경기도의 문학지리, 사회평론, 2007

소집단 활동 아카이브_이역배 미술운동 연대기

이역배 제공 / 정리 : 김종길 | 수석 큐레이터

- 1960
- 경기도 용인에서 태어남
- 1979
-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에 입학함(고등학교에서 조각가 김인겸에게 사사)
 - 수원에서 “의식적인 활동을 전개했던” 미술그룹 ‘포인트’ 결성. 12월 창립전 <포인트>전 개최. 창립회원은 백종광, 장영국, 최춘일

- 1980
- 5.15 서울역 집회(‘서울역 회군’)에 참가
- 제2회 <POINT>전 출품(참여작가 : 백종광, 장영국, 최춘일, 이역배, 박찬웅)

- 1981
- 군에 입대
- 제3회 <POINT>전에 문석배, 강문수, 정길수 합류. 미술동인 ‘POINT’는 1984년 5월부터 ‘時點·時點’으로 이름 바꿈

- 1984
- 홍익대학교 민화반 가입. 민화반에서 라원식, 이춘호, 양은희를 만남. 민화반 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미술동인 ‘두령’ 활동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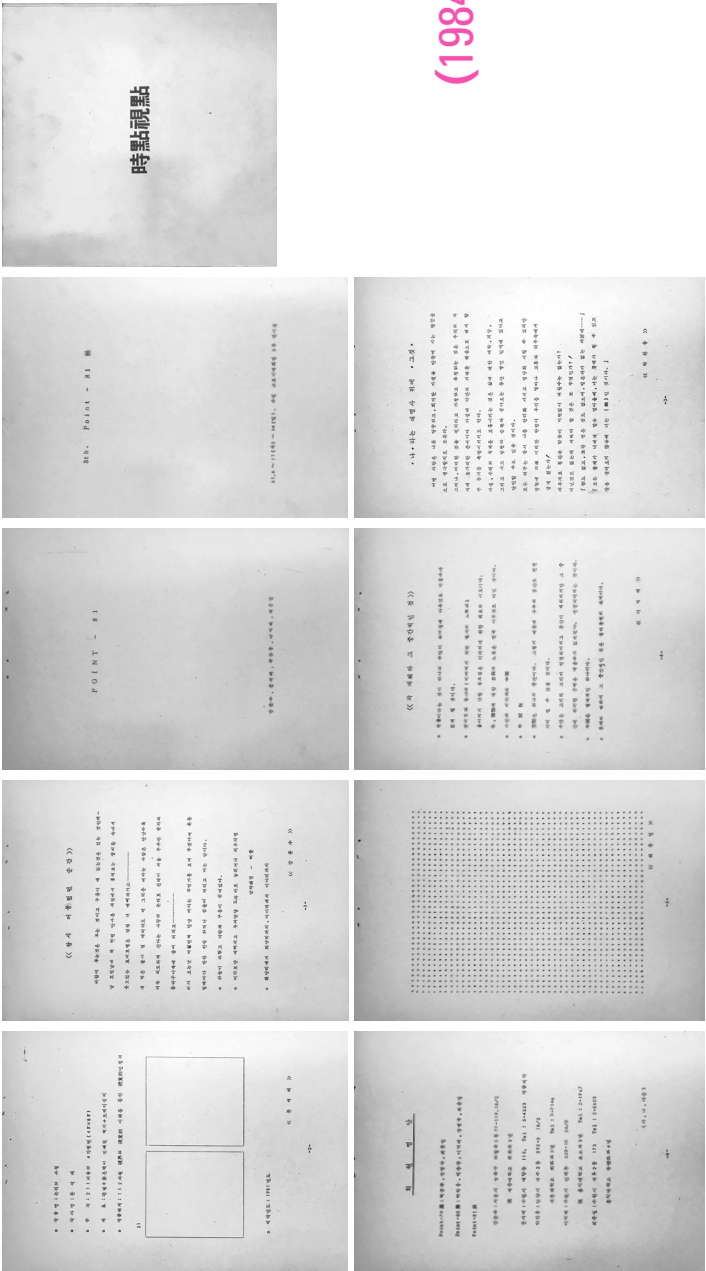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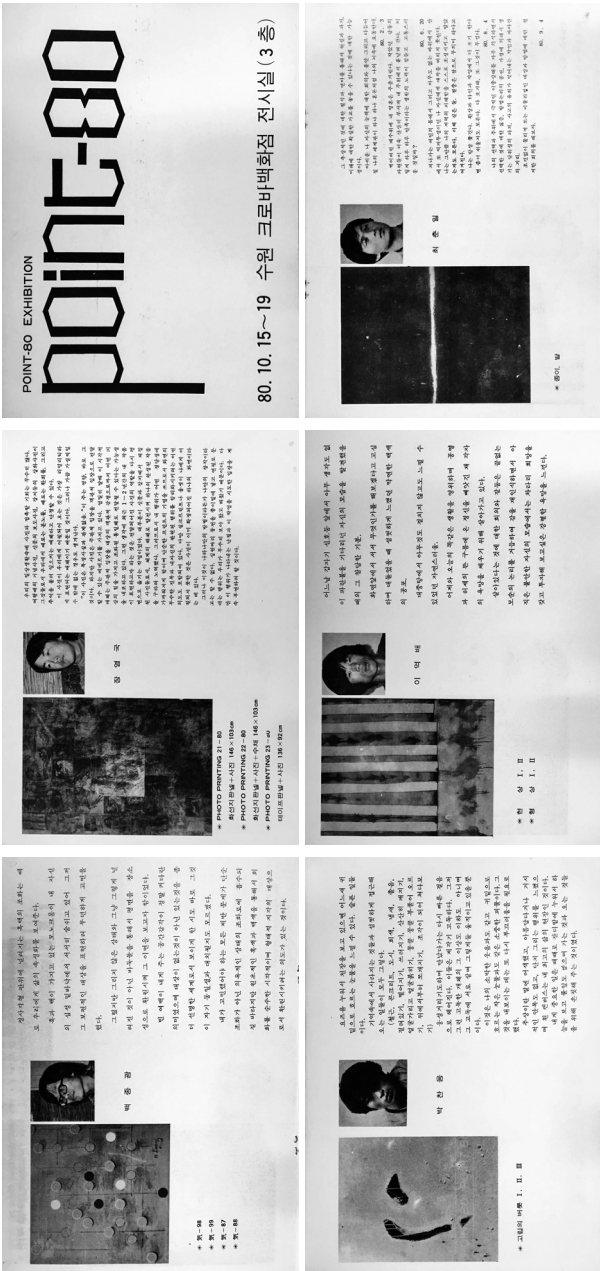
- 1985
- 홍익대학교 조소과 졸업 작품으로 동학군을 형상화 한 그림 출품
 - 그 해 하반기에 ‘발두령’ 활동을 위해 인천 지역팀에 합류
 - ※ 미술동인 ‘두령’이 ‘발두령’(현장), ‘논두령’(지원)으로 나누어 짐

- 1986
- 봄에 ‘발두령’ 활동을 위해 인천에서 부평 지역으로 합류. 9월 즈음에 부평에서 수원으로 내려옴. 이 시기에 지역현장 활동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게 됨. 그는 “82년에 ‘두령’이 결성되고 나서, 라원식, 성호숙, 정정엽 선배 같은 분들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두령’의 활동들, 결개그림이라든가 이런 걸 그릴 때인데, 저는 그 당시 군대에 있었고, 복학하고 나서, 86년에 갑자기 현장으로 이전을 한다고 하니깐... 저는 사실 예솔로써 뭔가 활동하고 싶었던 마음이 컸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두령’에서는 그런 부분보다는 ‘이전’(현장으로의 이전)이 중심이었고, 인천에 가서 저는 만평 작업, 그 당시 주로 노동운동 조직에 교재용으로 사용했던, 노동 교재에 만평을 그렸거든요. 그런 활동을 했었는데”라며 아쉬움을 토로. 그런 아쉬움을 채우기 위해 수원으로 내려와 활동
 - 수원의 목판모임 ‘판’에 참여함. 1988년 수원에서 미술동인 ‘새벽’이 결성되는데, 목판모임 ‘판’은 그 전사(前史)에 해당. ‘판’에는 최춘일, 이주영, 이역배, 손문상, 김영기, 이득현, 유동일, 황호경 등이 참여
 - 수원에서 활동하던 그는 박찬웅의 제안으로 안양 지역으로 활동 근거를 옮김. 당시 박찬웅은 안양의 통일교회에서 ‘안양 근로자의 밤’과 같은 문화 활동을 하고 있었고, 수도권에서 안양·군포 지역으로 학술(‘학생 출신 노동자’를 말함) 현장 활동가들이 많이 내려와 있던 때이기도함.

- 1987
- 1987년 6월, 안양·군포·의왕은 19일, 23일, 26일 안양역에서 안양경찰서까지 시민들의 합성과 합창이 터져 나왔고 7.8.9월 노동자 대투쟁으로 들끓었음(88년 그린월잡사와 안양전자 투쟁을 계기로 노동자의 민주화 열망을 담아내며 91년 박정수 열사 장례 투쟁까지 5년간 민주화의 물결이 오동침)
 - 6월 26일 집회는 국민운동본부가 선포한 6.26민주헌법 쟁취 국민평화대행진에 맞들려 2만 명의 시민들이 안양 1번가에서 우체국에 이르는 거리를 가득 메웠고, 만안구청을 지나 (구)안양경찰서 앞까지 행진하면서 모든 차량이 꺾기 일종의 ‘해방의 거리’로 만들

- 7월, 안양전자위장이전을 저지하기 위해 본사건물을 노동원들이 점거하고 농성
- 그림사랑동우회 ‘우리그림’을 결성. 당시의 창립취지는 “우리 삶의 터전인 안양에서 안양시민 스스로 자신의 삶과 염원을 표현하고 그것을 즐길 수 있는 건강한 미술문화를 꽃피우고자 한다. 그리고 사구세력의 문화적 침투에 당당히 맞서 면면히 이어온 민중의 삶 속에서 우리 그림의 맥을 찾고 이를 통해 현시대에 걸 맞는 미술양식을 창조하며 민중의 삶과 유리되지 않는 미술로서의 자리 매김을 위해 노력한다.”고 밝힘. ‘우리그림’에는 홍대평(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관악산 소재의 불성사 주지승), 불성사는 한국불교대학교종 소속의 사찰임. 불화전수자), 홍선웅, 박정환, 박찬웅, 이역배, 주완수, 정승각, 권윤덕, 장유정, 권애숙, 김한일, 정도웅, 황용훈 등이 참여
- 1986년 말에서 1987년 12월까지, 박찬웅, 권윤덕, 장유정과 함께 디자인 사무실 ‘산 그라픽스’를 열고 지역 노동운동 조직과 연계해 유인물 제작 등의 활동을 전개함. 당시에는 광고를, 책 표지, 삽화 등의 수요가 많았음. 활동비를 마련하기 위해 전집류에 삽화를 그리는 일도 함. ‘산 그라픽스’는 미술동인 ‘두령’의 ‘산 미술’, 『산 그림』의 ‘산 미술’ 정신의 영향을 받은 것. 즉 ‘두령’의 정신이 ‘산 그라픽스’ 활동에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음

- 12월 5일(토)~6일(일), 이틀간 안양근로자회관 강당(장내동 성당 앞)에서 <우리그림 창립전>을 개최. 5일 오후 6시부터 창립대회를 열고 ‘그림군’ 공연을 옴. 이역배, 박찬웅, 권윤덕, 장유정이 주축이 되어 기획한 것. 창립전에 <열사해원도>(1987)를 제작 출품. 5미터가 넘는 큰 결개그림. 이 결개그림은 1980년의 ‘5월 광주에서 이한열 열사에 이르기까지, 80년대의 민중 주체라 할 수 있는 노동자, 농민 등이 등장. 그림의 형식은 꽃과 불꽃 모양의 이미지가 중앙을 동글게 에워싼 형국인데, 여성 노동자가 화하게 웃으며 박수를 치고 있고, 그 위로 고구려 고분 벽화의 해신과 달신이 서로를 마주보며 만나는 그림을 차용한 것 같은 두 남녀가 있음. 중앙 오른쪽에 이한열 열사가 있고, 왼쪽에 오월 광주가 있음. 그리고 그 큰 이미지들 사이사이에 역사적 서사에 바탕 한 그림들이 배치되어 있음. ‘두령’의 그림 형식과 유사함. 1987년 당시에는 결개그림의 양식이 프로파간다의 선동성에 전투성을 가미한 혁명적 낭만주의 미학을 따름. 그러나 ‘두령’의 영향을 받은 ‘우리그림’은 ‘부드러운 민중성/대중성’을 표현. 1980년까지 이 결개그림은 경기남부 지역뿐 아니라 노동 현장이나 집회가 있는 지역이면 어디든 걸리는 그림이 됨.
- ‘우리그림’ 외에도 하반기에 안양독서회, 안양민요연구회 등의 문화단체가 창립되어 활발한 활동 시작
- ‘우리그림’ 회원들이 노동자 미술패 ‘까막고무신’의 안양 노동문화 근간자의 결개그림 <우리를 이야기>를 지원. 직접 제작하던 것에서, 노동 문화부를 활성화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노동 스스로 제작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가르침. <우리를 이야기> 결개그림은 그런 측면에서 매우 상징적인 작품. 그 과정에서 ‘까막고무신’이 결성하게 된 것



이역배 ‘두령’ 활동기 (1984~1986 : 인천, 부평, 수원)

1984

1985

1988

- '우리그림'이 제1회 안양 시민미술학교를 운영
- 안양 그린힐 섬유 봉제 공장 화재 사건으로 기숙사에서 잠자던 스물 두 명의 여성 노동자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자, '우리그림' 회원들이 영정도를 제작함. '그린힐 노동참사 합동 위령제'에 영정도가 걸림. [안양(安養)은 불교의 '극락'(極樂), '극락정토'(極樂淨土), '안락'(安樂)과 같은 말임. 마음과 육신에 일체 괴로움이 없고 모든 것이 편안하고 즐거운 곳이라는 뜻임]

- 이억배는 당시의 영정도 제작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고. “이 분들이 노동운동 싸움 과정에서 희생된 분들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열악한 노동환경 현실에서 희생된, 한국사회의 말도 안 되는 모순에 희생된 사람들이라. 그런데 이 분들의 영정식은 예우를 하고 싶었어요. 한복을 입힌 것은 그런 의미예요. 처음에는 노동자들이 죽었기 때문에 작업복을 입히자 하는 얘기도 있었는데, 이들이 죽었을 때 작업복을 입은 모습이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이 분들이 원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장 전통적인, 한복을 입힌 모습으로 그렸어요. 여성들의 얼굴이 들쭉날쭉 한 것은 이것도 공동 작업으로 했기 때문에, 전체 조율을 했지만, 여러 명이 붙어서 같이 작업을 하는 일이다 보니깐 좀 얼굴 생김새도 들쭉날쭉 이고, 얼굴 크기도 잘 안 맞췄지고, 어떤 사람들은 잘 생겨지고, 어떤 사람은 좀 소박하게 그려지고. 이 그림은 '우리그림'에서 고문으로 계셨던 분이 불화를 하시는 스님이었기 때문에 그 스님이 전통불화의 방식으로 지도를 해줘서 그 방식으로 제작된 거예요.”

- 이후 영정도는 '그린린 노동참사 합동 위령제'에 걸림.
 - 1월에 '우리그림 미술신문' 창간호를 발간(1988년 5월까지 총 7호를 펴냄). '우리그림'은 대중조직이었기 때문에 시민, 노동자와 소통하는 도구가 필요했을 뿐만 아니라 그림을 통해서 삶을 변화시키는 작업을 하려 했음. 또한 적극적으로 현장에 개입하고 운동하는 여러 활동 중의 하나로 인식
 - <우리그림> 창간호, 1988년 1월 23일 발간
 - <우리그림> 3호, 1988년 4월 15일 발간
 - <우리그림> 4호, 1988년 5월 20일 발간
 - <우리그림> 5호, 1988년 8월 5일 발간
 - <우리그림> 6호, 1988년 11월 30일 발간
 - <우리그림> 7호, 1989년 5월 1일 발간
- 당시 '우리그림'은 노동문화를 활성화시키는 노력을 기울임. 노동자들 중에는 그림에 재능이 있는 사람들도 있어서, “그림을 그리고 싶다,” “고등학교 때 미술을 배웠다”고 말하기도 함. '우리그림'은 그린 노동자들을 교육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했고, 그 과정에서 '안양 1세대 1팀2팀3팀' 안양 2세대 1팀2팀3팀' 등의 노동자 활동팀들이 구성됨. 당시 이태선 노동자가 파업현장의 미술 총책임자가 되어서 깃발, 만장 등을 직접 주도하기도 함. '우리그림'은 이들과 함께 강연도 태백의 광산노동자대회에도 참석

19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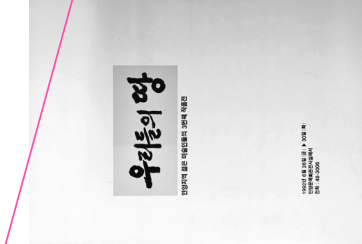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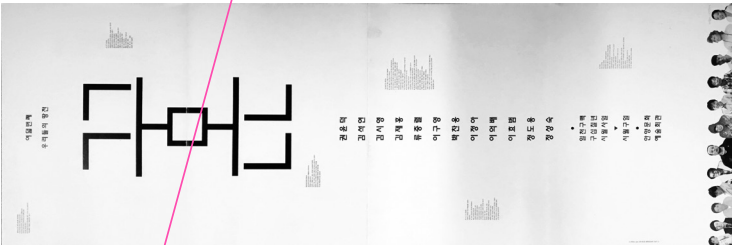
- 시민미술강좌 “신바람 나는 그림 학교”를 운영. 작가의 회고는 다음과 같음. “‘우리그림’ 활동에서 굉장히 중요한 활동 중 또 하나가 ‘시민미술학교’예요. 미술교실, 시민미술학교, 노동자문화교실. 그렇게 해서 미술을 가지고 대중교육 활동을 하는 것을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활동으로 했어요. ‘신바람 나는 그림’이라는 표제 글씨는 봉준이 형이 쓴 거예요. 그 당시에 봉준이 형은 우리들에게 정신적으로 크게 의지가 되는 형이었죠. 라원식 형도 그랬지만요. 봉준이 형이 와서 강연도 해주시고 그랬어요.”
- 그림사랑동우회 ‘우리그림’은 제2회 안양시민미술학교로 ‘여성미술학교’ 기획
- 민족예술연구회연구단이 주최하고 안양문화운동연합이 주관한 제1회 안양연구학교에 참여
- 민족예술연구회노래단 “‘세힘’”이 주최하고 안양문화운동연합이 주관한 제1기 안양노래학교에 참여

1988-1991

- 1988년과 89년 당시 '우리그림'은 '안양지역 12.16대통령선거자료집', “군포차과의일”이 탄생했습니다. 「광주 민중항쟁 계승을 위한 5월 문화제」, 「초급민요강습안」, 「다같이 알아봅시다-경기노련이런」, 「사/무/실/이/전/기/금/마/원/을/위/한 반-나-결-짓-집」, 「제1회 안양 노동문화 큰잔치-밤하세 밝히세 노동문화의 횃불을!」, 「안양지역 노동자회 시사회양강좌(1) “애국과 미국의 역사”」, 「노래단 세힘 정기공연-이제는 하나다 진노협」, 「극단 '큰힘' 노래단 '세힘' 합동공연-노래극 하늬 아래 방 한칸」, 「노래극 “하늬 아래” 방 한칸」, 「제2회 민족극 한마당 참가작품 극단 큰힘 정기공연-마침내 가리라」 등의 행사에 참여하거나 자료집을 제작함.
- 이억배는 '안양 문화통신'의 편집장으로 활동함. '안양 - 문화통신'은 1989년부터 1990년까지 제작
- 1989년에 창간 된 '안문연 신문'을 기획하고 제작
- 시민미술학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구름가족 이야기>를 기획하고 진행. 1990년대 초 박찬웅은 그림책을 하자고 해, 이억배는 권윤덕, 정유정과 운동을 함. <구름가족 이야기>는 이후 이들이 그림책 운동으로 전환하는 동기를 부여. 실스크린으로 제작된 이 책은 날개 돋친 듯 팔림. 이억배는 “지금 봐도 이 그림책은 완성도가 높아요. 아예 공동 작업으로 만든 건데, 저는 이 작업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는데, 권윤덕, 정유정, 정승각, 시민들, 교수... 그런 분들이 참여했어요. 어찌 보면 한국 그림책의 하나의 전환점이 되는 작업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라고 회고
- 이억배는 당시 「전국노동자신문」에 1년간 만평을 연재. 이후 만화는 정성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신문상에 만평을 넘겨 줌
- 1989년에 창간 된 '안문연 신문'을 기획하고 제작
- <노동의 해별전>이라는 현장전시회를 기획함. 판화전이 주를 이뤘고 기금 마련전 성격이기도 함. 이억배의 회고는 다음과 같음. “금성전선 파업 기간 중에 구내식당에서 했어요. 이 당시 '경인경수지역공실'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안양의 '우리그림'부친의 '홍순공방'이라고 봉준이 형이 했던, 그리고 수원의 수미협, 서울의 노동자 '활화산' 같은 친구들이 오고, 이런 어떤 소집단들, 현장 활동을 하는 젊은 작가들 중심의 그런 작가들이 처음에 모였다가 나중에 경인경수지역의 사람들로만 지역 미술페로 딱 정리가 됐죠. (중략) 안양 우리그림, 광주 시민판화 외에도 노동자 판화, 작가들의 판화 등 모두 함께 현장 전시회에 참여 했어요.”

1989-1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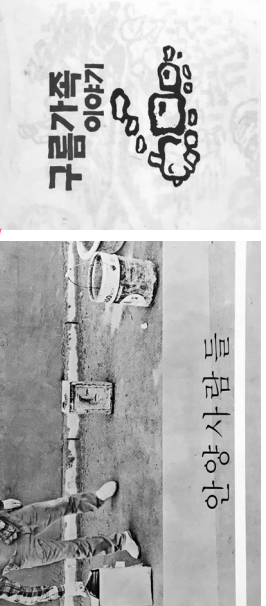
- “잠 삶을 지향하는 안양지역 젊은 미술인들”이 주로 모여서 미술운동인 '우리들의 땅'을 만들. 해마다 이들은 주제를 기획함. 1989년 첫 번째 주제전에 권성택, 권윤덕, 류봉현, 류중렬, 박신자, 박찬웅, 유미선, 이억배, 이정아, 인효경, 정승각, 정유정, 주관수, 홍대룡이 참여함.
- 10년 간 지속된 <우리들의 땅>전은 지역적 의제를 미술 담론으로 확장하면서 동시에 창작 형식과 방법론으로 고민한 민중미술 진영의 첫 기획전이라고 할 수 있음. 대체로 지역적 의제를 미술담론으로 확장한 것은 1990년대 초중반이 되어서야 진행되었다고 볼 때 이 전시는 매우 역사적인 전시라 할 수 있음.
- 이억배는 1991년 겨울, 미술운동의 시대를 끝내고 1992년부터 개인 예술가로서의 정체성을 찾는 작업에 들어갔으나 예술이 어떻게 사회와 만나고 참여할 것인가의 고민을 멈추지 않음. 그 결과와 그림책 운동이라고 할 수 있음.



1986

‘우리그림’, ‘안양문화운동연합’ 활동기 (1987~1991 : 안양)

1987



‘우리들의 땅’ 활동기 (1989~1999 : 안양, 안성)

1989-1999

문화원형의 천년 경기문화

조두호 | 큐레이터(조각, 문화재)

경기문화재연구원에 따르면 경기도가 지정한 문화재는 713건으로 유형문화재 278건, 무형 66건, 기념물 183건, 민속자료 12건, 문화재자료 174건이 있으며, 사라질 위기에 있는 문화재에 대한 지정작업이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경기천년동안 유교·불교·도교의 문화적 습합은 경기도 문화만이 아니라 한국문화의 특징이면서 원형이기도 할 것이다. 그 중에서 불교문화에서 넓게 발현된 문화재 유산은 경기도 원형문화의 주축을 이룬다.

<경기 아카이브_지금,>의 세 번째 파트 ‘문화재_홀리고,’는 경기천년의 문화원형이자 그것의 제로 포인트(Zero Point)로서 경기도의 문화재를 보여주고자 한다. 문화재는 우리가 쉽게 인식하고 있는 ‘국보’와 ‘보물’ 같은 국가의 유형문화재를 비롯해 그 범위의 폭이 넓다. 물질로 구현된 건축물이나 조형물뿐만 아니라, 구전(口傳)·음악·인류학적인 유산·민속·법·습관·생활양식 등을 모두 포괄한다. 경기문화재연구원에 따르면 경기도가 지정한 문화재는 총 713건(2018.5.31기준)으로 유형문화재 278건, 무형 66건, 기념물 183건, 민속자료 12건, 문화재자료 174건이 있으며, 사라질 위기에 있는 문화재에 대한 지정작업이 추가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전시는 기존에 지정된 유·무형의 문화재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경기도문화재총람-도지정편Ⅰ·Ⅱ』(경기도, 2017)와 발굴조사 연구보고서 180여권을 기초자료로 활용했고, 또 전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사 연구한 추가구성 자료로 기획하였다. 경기천년의 문화재 자료를 개괄하면, 고려시대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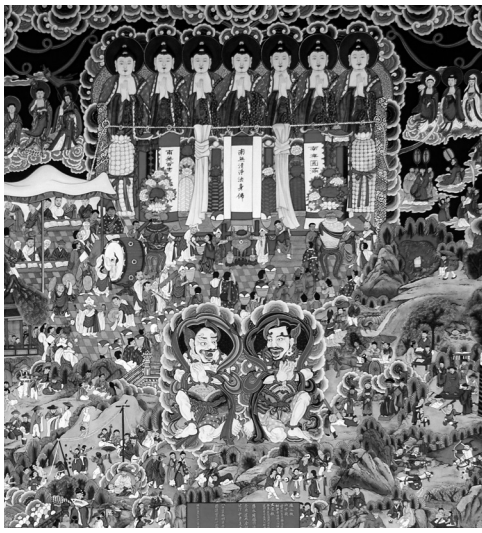
조선시대까지 설립한 사찰건축은 물론이요, 석탑, 불상, 탕화가 다수이다.

경기천년동안 유교·불교·도교의 문화적 습합은 경기문화만이 아니라 한국문화의 특징이면서 원형이기도 할 것이다. 그중에서도 불교문화에서 넓게 발현된 문화재 유산은 경기문화의 주축을 이룬다. 1790년(정조 14)에 김홍도(金弘道, 1745~1806?)가 그린 것으로 알려진 <옹주사 대웅전 후불탱화>(440×350cm)는, 석가모니부처를 중심으로 아미타와 약사부처 등이 그려진 삼불회도(三佛會圖)로 원근법과 안정한 구도, 색채의 조화가 뛰어난 조선 후기의 불화이다. 19, 20세기의 불화양식으로 주목하는 후불탱화는 전국의 사찰에 널리 확산되었고 그래서 민간에까지 많이 알려진 경기도 문화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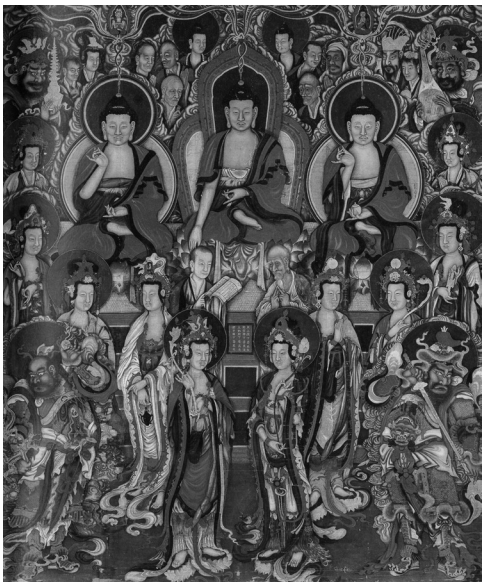
또한 경기도의 초상화, 영정(影幀)은 매우 사실적인 묘사로 인물의 개성을 세밀하게 그려낸 것이 특징인데, <장만선생 영정 및 공신록권>(1625)에서 인물의 화려한 의복의 표현과 병을 얻어 한쪽 눈을 잃어 안대를 한 모습이나 수두자국의 묘사 등이 압권이다. <인재 홍진 영정>에서 술을 좋아한 홍진이 주독으로 인해



인재(認齋) 홍진(洪進, 1541~1616) 영정, 경기도유형문화재 제178호, 2001년 5월 17일 지정, 조선시대



김현자, 동화사 약수암 감로도, 현대 불화



옹주사대웅전후불탱화, 경기도유형문화재 제16호, 1972년 5월 14일 지정, 조선시대



인재(認齋) 홍진(洪進, 1541~1616) 영정 세부



장만(張晩, 1566~1629) 영정, 도지정문화재 제142호, 조선시대, 경기도박물관

무형문화재는 형태로 헤아릴 수 없는 문화의 소산으로서 역사와 예술의 가치가 높은 것을 연구하고 보존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정하는데, 기능과 예능으로 구분한다.

판소리, 무용, 악기, 음악 등 예능의 보고이자 그것의 원형으로서 ‘경기도의 무(巫)’를 빼놓을 수 없으며, 이번 전시 중 ‘경기도의 굿’의 시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코에 종양이 자란 모습을 섬세한 필치로 담아낸 모습은 문화재에 나타난 사실주의와 해학성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무형문화재는 형태로 헤아릴 수 없는 문화의 소산으로서 역사와 예술의 가치가 높은 것을 연구하고 보존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정하는데, 기능과 예능으로 구분한다. 현재 ‘경기도무형문화재 총연합회’[회장 임웅수(광명농악 보유자)]가 경기도의 66개 종목의 무형문화재를 모아 연마다 <경기도 무형문화재 대축제>를 열고 있다. 이번 전시에는 이 대축제에 보고한 기록들과 서지류, 영상자료 등을 출품할 예정이다.

그리고 판소리, 무용, 악기, 음악 등 예능의 보고(寶庫)이자 그것의 원형으로서 ‘경기도의 무(巫)’를 빼놓을 수 없는데, 전시를 위해서 ‘경기도의 굿’에 대한 연구도 진행 중이다. 국가무형문화재 제104호 새남굿은 다른 이름이 ‘한양굿(또는 서울굿)’으로 왕실에서 열렸던 굿이다. 조선중기 이후 민간으로 옮겨온 경기도 굿과 함께 경기도 무형문화재의 원형에 들어맞는다. (사)화성재민청보존회가 경기도에 흩어져 있는 당굿을 모아 시연을 준비 중이며,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8호인 ‘승무’와 ‘살풀이’ 자료를 포함해 실제 무업(巫業)에 사용한 무신도, 탕화, 무구(巫具)

등도 전시할 예정이다.

무형문화재는 살아있는 문화재로 이수(履修)와 전수(傳受)의 방식을 통해 다음세대에 다양한 기능과 예능을 전달한다.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고리로서 무형문화재의 보존을 위한 체계적인 전수방식은 반드시 필요하다. 전시를 준비하면서 만난 다양한 문화재들이 온전히 연구되고 있는지, 또 앞으로 계속 보존될 수 있을지에 대한 물음표가 생긴다.

❖

현장을 방문하는 동안 문화재 일을 하는 사람들 사이의 갈등을 보았다. 그 안에서 벌어지는 파벌이나 권력 싸움은 문화원형을 지키고 보존하려는 사명감과는 거리가 멀고, 심지어는 그것을 위배하는 행위일 것이다. 우리 문화의 원형을 연구하고 보존하려 할 때 그런 행위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문화 인식의 수준을 낮게 떨어뜨린다. 세계는, 민족주의 관점의 문화우월주의에서 총체적 관점의 문화상대주의 시대로 넘어왔다. 문화다양성의 시대가 온 것이다. 바로 그런 문제의식의 자리에 <경기 아카이브_지금,>의 ‘문화재_홀리고’가 있다.



장만(張晩, 1566~1629) 영정, 보물 제1509호, 1625년, 경기도박물관 소장

다양성과 개방성의 포용, 역동의 경기(京畿)로

김성환 | 경기문화재단 정책실장

6백년을 넘어 천년으로

지난 2014년, 조선시대 경기제(京畿制) 시행 6백년을 맞아 경기도 6백년의 역사문화에 대한 정체성을 규명하는 과정과 결과가 여기저기서 이뤄졌다. 사실, 필자가 몸담은 경기문화재단과 경기도박물관에서는 이를 위한 작업이 훨씬 그 전부터 진행되고 있었다. 이를 하나의 압축된 특징으로 규정하기 위한 고민과 토론이 긴 시간 동안 이어졌다. 진작부터 ‘경기 6백년’을 기념하는 특별전시회를 준비하고 그 중심적인 내용을 정리하면서도, 정작 이를 한마디로 규정하기에는 쉽지 않았다. 그런 가운데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한 여러 자료들을 전체적으로 훑으면서 6백년 경기도의 역사문화적인 정체성을 ‘조선 근본의 땅(朝鮮根本之地), 경기(京畿)’라고 정리했다. 경기는 조선의 왕화(王化, 왕의 어진 정책)가 우선 실행되었던 곳이어서 왕조의 토대를 이루고 있었음에서였다.

2015년이 시작됐다. 6백년에 머물러 있지 않고 새로운 개념의 설정과 확장된 아이덴티티를 조직하는 작업을 단계적으로 준비하고 실행했다. 이제는 ‘2018, 경기천년’이었다. 이것이 단순히 역사의 소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그 의미는 지극히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고, 이 작업은 필요치 않다고 감히 단언한다. 여기에는 그간 역사문화의 회고와 정리를 바탕으로 새로운 재발견과 더 나아가 미래의 지향을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 경기도의 ‘새천년(New millennium) 2018’은 이렇게 시작되어야 한다.

경기문화(京畿文化) 원류의 형성

지리적으로 경기도가 우리 역사에서 주요 무대로 등장한 것은 백제의 시조인 온조(溫祚)가 하남 위례성에 도읍을 정하면서부터였다. 현재의 풍납토성 일대가 그 한성(漢城)으로 비정되는데, 『삼국사기』에는 기원전 18년으로 기록돼 있다. 지금부터 2030여년 전이다. 물론 그 이전에는 삼한(三韓) 중에서 78개의 소국(小國)으로 이뤄져 있던 마한의 몇몇 나라들이 있었다. 그리고 서기 475년, 백제가 고구려에게 한성을 빼앗기고 웅진(충청남도 공주)으로 옮겨가기 전까지 5백여 년에 조금 못 미친 긴 기간 동안 경기도는 백제의 도읍을 끼고 있었다. 현재의 광역자치단체, 메트로폴리탄(Metropolitan)과 비교할 수 없지만, 경기 지역은 한성백제의 도읍을 아우른 중심영역이었다.

경기도 일대가 역사의 중앙무대로 다시 등장한 때는 5세기(440여년)가 지난 9세기 말 10세기 초였다. 즉주(柞州, 안성) 등에서 세력을 모은 공예(弓裔)가 901년 국호를 고려로 하고 송악(松嶽, 개성)에 도읍했다. 그리고 918년 왕건(王建)이 마진·태봉 등으로 국호를 바꾸고 철원으로 천도했던 공예를 축출하고 다시 송악에서 고구려의 계승을 천명하며 고려를 건국했다. 2018년은 그런 고려의 건국 천백년이 되는 해이다. 또 18년이 지난 936년 고려는 신라와 후백제를 통합했고, 발해의 태자로 대표되는 발해 유민을 수용하여 ‘삼한일통(三韓一統)’을 이루었다. 이후 경기 지역은 천년을 넘게 한반도 역사의 중심이 되었다. 현재의 ‘경기문화(京畿文化)’라고 불릴 수 있는 정체성의 원류는 여기에서 비롯되었다.

1018년 음력 2월 경기제(京畿制) 실시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대 국가에서도 당연히 도읍을 에워싸며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뒷받침을 해주는 영역이 형성돼 있었다. 규모와 범위에서 차이가 있겠지만, 처음에는 도읍을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제반 환경이 형성됐고 이후 그 필요성은 점차 조직화되었다. 동아시아 역사상(歷史像)에서 ‘경기(京畿)’의 출발은 중국 당나라 때 도읍인 장안[西安]을 지지하기 위해 그 주변지역을 경현(京縣, 赤縣)과 기현(畿縣)으로 나누어 통치했던 데서 비롯되었다. 그 영향에 따라 신라는 경주를 중심으로 왕기(王畿)를 형성했다.

고려왕조에서 경기제(京畿制) 운영의 단서는

개경에 13개의 적현과 기현을 두었던 995년(성종 14)에 보인다. 그렇지만 그때의 적현과 기현은 개성부(開城府)에 소속되었고 ‘경기’라 명명되지 못했다. ‘경기’의 명칭이 등장한 것은 이로부터 20여년 후인 1018년(현종 9)이었다. 부(府)를 없애고 현령(縣令)을 설치하는 개편 과정에서였다. 개성부에 소속돼 있던 적현과 기현들은 개성현과 장단현의 현령에게 관할을 받으면서도 중앙의 최고부서인 상서도성(尙書都省)에 직접 예측되는 이중 구조로 바뀌었다. 사실상 중앙 정부 최고기관의 직속이었다. 『고려사』에서는 그 구체적인 때를 기록하고 있지 못한 반면에 『고려사절요』에서는 2월(음력)로 확인되고 있어 경기의 출발은 1018년 2월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고려의 ‘경기제’ 탄생은 왕조 운영의 제반 기틀이 완성되었음을 의미하지만, 이것이 지방제도로서 경기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해동천자(海東天子)의 황기(皇畿)와 왕기민(王畿民)이었던 경기와 경기인(京畿人)
고려의 국도(國都)인 개경은 고려왕제 통치권의 중심인 황도(皇都)였다. 해동천자(海東天子)가 다스리던 황제국 고려의 도읍이 개경이었다. 새 왕조를 창건한 직후 태조 왕건은 “하늘에서 내려준 천명을 받은 왕조”라는 뜻으로 ‘천수(天授)’라는 연호를 사용했다. 또 그의 아들인 광종은 960년에 개경을 황도(皇都)라고 정식으로 명명하고, 준풍(峻豊)의 연호를 사용하였다. 고려의 황제국 체제는 이밖에 황실을 통괄하는 관서였던 제왕부(諸王府)를 둔 사실 등과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여러 증거들을 남겼다.

고려의 천하관은 중국 중심의 화이론(華夷論)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었다. 송·요·금 등이 병립하고 있던 동북아시아에서는 독립적인 천하들이 별개로 운영되며 대외관계에서 다양한 이합이 이루어지고 있던 별건곤(別乾坤, 천하) 자체였다. 고려는 체후국으로 파악할 수 있는 번(蕃) 또는 번국(蕃國)을 아우르는 고려 중심의 화이론을 가지고 있었다. 고려 조정에서는 국도(國都)인 개경 이외에 북쪽의 서경(西京, 평양), 동쪽의 동경(東京, 경주), 중부의 남경(南京, 양주)을 운영하면서 각기 별도의 경기제를 시행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지만, 서경에서의 서경기제(西京畿制) 운영은 『고려사』에서 확인된다.

또 『고려사』와 『고려사절요』에서 ‘4기(四畿)’가 있었다는 단편적인 언급은 ‘4곳의 경기’, 즉 4경에서 경기제가 운영됐음을 뜻한다. 고려 전중기에 개경과 서경이 불변의 위상을 가진 것과 달리 동경과 남경 중의 한 곳은 들고나며 고려의 3경(三京) 체제를 구성했다. 즉 3경·4경에서는 각각의 ‘경(京)’을 지지하는 ‘기(畿)’가 별도로 운영됐는데, 이를 굳이 말하자면 서경기(西京畿)·남경기(南京畿)·동경기(東京畿)였다.

서경·남경·동경과 달리 황도였던 개경은 황제가 머물며 정무를 펼치던 곳이다. 나머지 별경(別京)과 다른 위상을 가지는 것이 당연했다. 그리고 그런 황도를 에워싸고 있으면서 황제의 교화를 가장 먼저 받는 곳은 황기(皇畿)라고 불렸다. 개경을 중심으로 하는 고려의 경기제는 황제국 고려를 지지하는 황기였고, 그곳에 살던 경기민들은 왕기민(王畿民), 황기민(皇畿民)이었다. 이것은 다원적인 천하관(세계관)을 바탕으로 하는 고려의 황제국 체제 운영과 긴밀한 관계가 있었다. ‘3경’ 또는 ‘4기’는 황제국 고려의 천하를 지지하는 시스템 중에 하나였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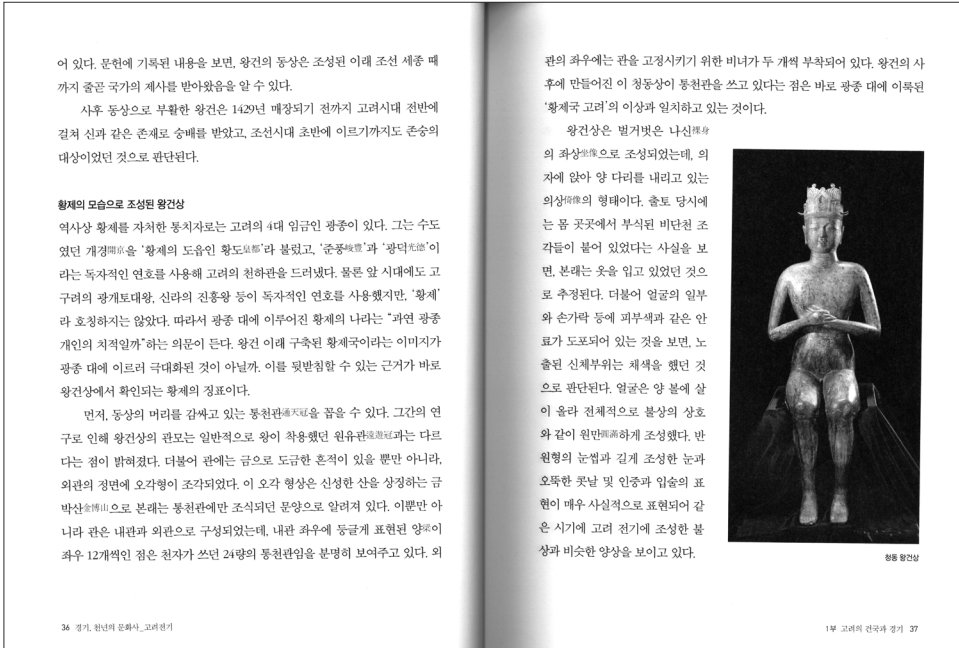
삼한일통(三韓一統)의 4가지 조건, 다양성·개방성·포용성·역동성

유교가 바탕이 됐던 조선의 문화적인 특징을 사대부, 선비를 중심으로 하는 단아와 세련, 정제미 등으로 규정할 수 있는 반면에 고려 문화의 특징으로는 다양성, 개방성, 포용성 등이 거론되고 있다. 상대적인 관점이 전제돼 있지만, 고려 사회는

조선과 무언가 다른 분명히 역동적인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문화적인 특성들은 황제국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조건이었다. 고려시대에는 종교적인 측면에서 불교를 중심으로 하면서도 유교·도교·풍수지리·민간신앙 등 다양한 사상들과 충돌하지 않고 교섭했다. 또 개경의 관문인 벽란도에서는 동아시아를 넘어 아라비아 상인들까지도 자유롭게 교역하였고, 그런 과정에서 ‘코리아’가 유래했다. 개방성에 토대한 다양성이 공존했던 고려사회의 모습이다.

고려사회에서 개방성과 다양성은 포용성이라는 단계로 확장되면서 역동적인 모습으로 결과지어 졌다. 고려의 통일 과정에서 왕건의 아버지인 용건(龍建, 후에 세조로 추증)은 송악에 도읍하려는 이유를 ‘조선·속신·변한의 통합’이라는 데서 찾았다. 한반도는 물론 옛 고조선·고구려의 영역 회복과 그곳을 구성하고 있던 다종족(민족)·다문화 사회의 통섭을 지향했다. 그들이 얻고자했던 일통삼한(一統三韓)은 개방성과 다양성을 포용성으로 아우르고, 이를 역동적인 공존을 통해 융합한 새로운 창조의 결과물이었다.

우리는 지금, 역사를 통해 고려사회의 이런 포용성과 역동성을 배우려한다. 그리고 이를 새천년 경기, ‘2018, 경기 천년’의 준비를 위해 적극 참고하려한다. 황제국 고려의 황기(皇畿) 대부분이 지금의 경기(京畿)였다는 사실을 기반으로 한다. 더욱 확장되고 있는 다양한 갈래의 문화적 흡수 속에서 우리가 공존하기 위해서는 고려의 이런 가치들을 배움으로써 역동적인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야 한다. 단순한 구호에 머무르지 않는 통일의 지향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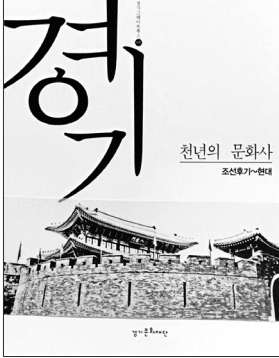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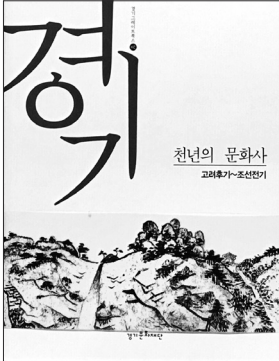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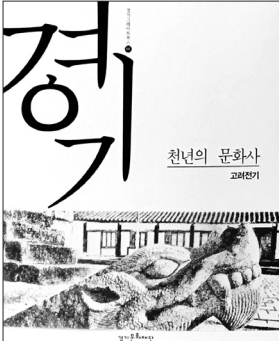


2018 경기문화재단 발간 경기그레이트북스 경기 천년의 문화사 1권 중

출처

김성환, 「경기문화, 동아시아에서 아라비아까지... ‘코리아 원류’ 꽃 피우다-2018경기천년, 고려시대의 경기문화」, 『중부일보』, 2015년 2월 15일자 문화면 -

김성환, 「다양성과 개방성의 포용, 역동의 경기(京畿)로」, 『경기 천년의 문화사』, 경기문화재단, 2018



2018 경기문화재단 발간 경기그레이트북스 경기 천년의 문화사 1~3권



문화예술교육 아카이브_[DVD]이것이 미래교육이다 10부작 임은옥 경기문화재단 지역문화팀 자료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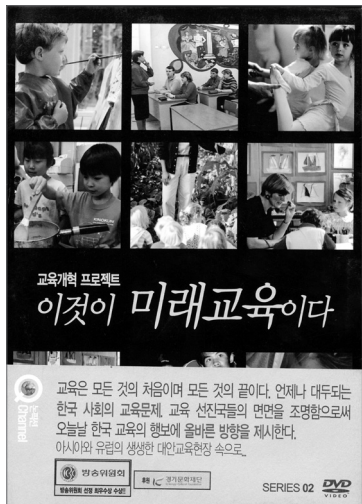
2004년 경기문화재단과 중앙방송은 “이것이 미래교육이다”를 공동으로 제작했다. 문화예술을 학습의 뿌리로 생각하는 세계 여러 나라의 대안교육 사례들을 취재하고 그들 학교의 교육사상, 교육방식, 교과과정, 교사의 역할과 학부모 참여 등 교육 전반에 걸친 혁신적인 실천을 조명하였다. 우리 문화예술교육의 방법론과 교육적 가능성을 위해서였다. 2005년 방송위원회는 ‘우수프로그램 뉴미디어 부문 최우수상 수상작’으로 이 다큐멘터리를 선정했다. 언론은 “영국과 일본 등 유럽과 아시아의 대안교육 현장을 찾아, 교육 철학과 방법론을 집중조명!”, “교육 선진국들의 면면을 조명함으로써, 오늘날 한국 교육의 행보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경기문화재단(후원)과 중앙방송(제작·공급원)은 2007년 이 시리즈 전체를 DVD로 제작해 판매했다.

“이 시리즈는 세계 각지의 대안교육 현장을 찾아 교육철학과 교육방법론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현재의 교육과 교육시스템을 가능하게 한 배경이 무엇인지를 짚어보는 ‘교육개혁 프로젝트’이다. 프로그램은 대안교육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뤄지고 있으며, 이러한 대안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교육사상적 기반과 교육환경의 토대를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 교육의 현실을 돌아보고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한 방법을 모색하려고 한다.” _ DVD 소개 글에서

- 1부 : 교육은 예술이다-영국의 슈타이너 학교
- 2부 : 교육 실험실-러시아의 톨스토이 학교
- 3부 : 교육은 체험이다-일본의 키노쿠니 학교
- 4부 : 사랑과 치유의 교육 공동체-태국의 무반택 학교
- 5부 : 오래된 미래교육-일본의 자유학원
- 6부 : 대화하는 교육공동체-덴마크의 그룬트비 교육
- 7부 : 함께하는 자유-독일의 몬테소리 학교
- 8부 : 공공교육 개혁의 희망-프랑스의 프레네 학교
- 9부 : 아이들의 자유, 지역 사회학교의 꿈-미국 알바니 프리스쿨
- 10부 : 스스로 공부하고 세상과 소통하라-미국 메트스쿨

교육은 예술이다-영국의 슈타이너 학교

독일의 교육사상가인 루돌프 슈타이너의 인지학에 기반해 대안교육을 펼치는 영국의 링우드 슈타이너 학교(Ringwood Steiner School)를 소개한다. 일반과목에 음악과 미술, 시와 연극 등을 활용하는 예술적 교육방식, 한 가지 학습주제를 두고 여러 가지 과목을 동시에 배우고 1학년에서 8학년까지 한 교사가 계속해서 담임을 맡는 통합교육, 학습의 결과가 아니라 학습과정과 그 과정에서의 체험을 중시하는 교과과정을 집중 조명한다.



교육개혁 프로젝트 이것이 미래교육이다(1)

사랑과 치유의 교육 공동체-태국의 무반택 학교
태국의 간차나부리 지역 콰이강변에 위치한 무반택 어린이마을학교에서는 4세에서 16세까지의 학생 150명 정도가 40여 명의 어른들(교사, 교직원)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며 자유와 사랑에 기초한 교육을 받고 있다. 이들 학생들은 가정에서 학대받거나 경제적 궁핍에 시달리던 아이, 고아와 장애아 등 태국 사회의 최하층 빈민 출신들로, 학생들은 무반택 어린이마을학교에서 기초교육과 함께 심신을 치유하고, 직업교육을 받으며 사회진출의 기반을 닦고 있다. 무반택 어린이마을학교는 서양의 대안교육사상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썬머힐 학교를 창립한 닐의 자유주의 교육사상에 불교의 인간론과 연기론(緣起論)을 접목해 이를 교육과 생활의 기초로 삼고 있는데, 이 점이 특히 서양인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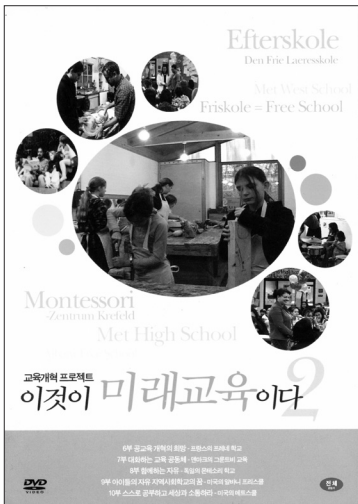
오래된 미래교육-일본의 자유학원

일본 도쿄도 히가시쿠루메시에 위치한 자유학원은 “생각하며 생활하며 기도하며”라는 교육이념 아래 1921년에 설립됐다.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동일한 교육이념과 교육방법으로 일관된 교육을 행할 수 있는 학교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의식주 생활교육과 학생자치를 교육의 근간으로 삼고 있다. 특히 “요리를

통한 교육”이 최근 일본 교육계의 큰 주목을 받고 있으며, 청소와 출석점검, 학생생활과 관련된 서무와 회계 등 학교 관리와 학생생활 운영이 모두 학생자치로 이뤄지고 있다. 기숙사 또한 사감을 두지 않고 학생자치로 이뤄진다. 자유학원은 문화와 생활 분야에서 다양한 시민교육활동을 펼치며 학교와 교육의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일본 생활협동조합운동과 일본 여성운동의 초기 주역들이 자유학원 출신 인물들이다.

교육은 체험이다-일본의 키노쿠니 학교

일본 오사가 인근(와카야마현 하시모토시 히코다니)의 산 속에 위치한 키노쿠니 학교는 “프로젝트 학습” (공동과제수행학습) 중심의 대안학교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프로젝트 학습은 연령과 학년에 상관없이 같은 관심을 가진 학생들이 모여 한 반을 이루고, 한 가지 학습주제를 6개월이나 1년에 걸쳐 수행하는 혁신적인 학습방식이다. 2004년 1학기 초등학교의 프로젝트는 목공, 양 기르기, 요리, 농장이며 이러한 프로젝트 학습이 전체수업의 절반을 넘는다. 최근 일본의 일반 학교에서도 이 프로젝트 학습을 벤치마킹해 ‘종합학습’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교육개혁 프로젝트 이것이 미래교육이다(2)

기록자료 모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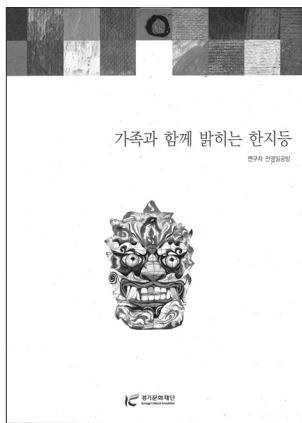
문화예술교육교재 임은옥 경기문화재단 지역문화팀 자료제공

2002년 6월 2일 경기문화재단은 부설기관으로 기전문화대학을 설립했다. 기전문화대학은 전국 최초의 문화예술교육기관이었다. 기전문화대학은 사회문화예술교육은 물론, 군부대 문화예술교육, 학교 밖 문화예술교육 등 초기 문화예술교육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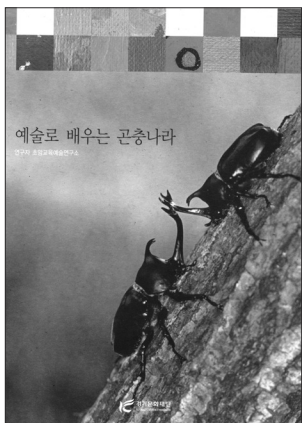
교육기획을 다양하게 펼쳤다. 현재 운영 중인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전신(前身)이다. 2006년 4월, 그 시기 기전문화대학과 북부사무소는 함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과 교재 개발”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유는 “교육프로그램 연구 개발에 관심 있으신 교육자,

예술가, 기획자, 연구자 분들에게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의 기획부터 산출까지의 전 과정을 공유함으로써, 지역 문화자산을 활용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연구 개발에 동참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보다 많아지기를 기대하는 마음” 때문이었다. 그렇게 제작된 교재들이 『예술로 배우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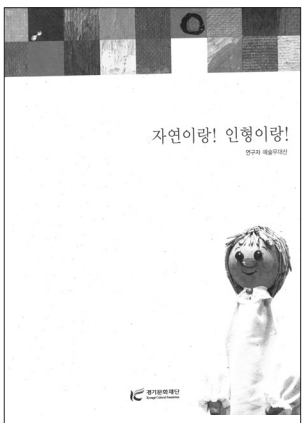
곤충나라』(초암교육예술연구소), 『가족과 함께 밝히는 한지등』(전영일 공방), 『자연이랑! 인형이랑!』(예술무대 산), 『흙으로 빛은 그릇의 역사』(취용예술관/연구자 김호)이다. 자료는 임은옥 님이 제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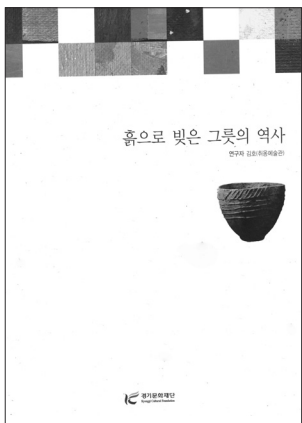
가족과 함께 밝히는 한지등, 전영일 공방



예술로 배우는 곤충나라, 초암교육예술연구소



자연이랑 인형이랑! 예술무대 산



흙으로 빛은 그릇의 역사, 취용예술관

러시아 톨스토이학교_3학교 수업장면



경기도의 아이들

사진 | 김윤석



아이들은 어떤 환경에서 놀고 배우며 자라야 할까? 이 작업은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혁신학교인 시흥의 승지초등학교, 대안학교인 광명의 범씨학교와 풀씨학교, 공동육아를 하는 수원시 달팽이어린이집, 그리고 군포의 대야미 마을교육공동체에 다녀왔다. 아이들은 에너지가 넘쳤다. 뛰어 놀며 높은 곳에 올라가길 좋아했다. 가장 훌륭한 놀이터는 자연이었다. 흙을 만지고 개미를 관찰하고 열매를 모았다. 텃밭에 직접 채소를 길렀고 길고양이도 돌봤다. 서툴지만 진지하게 토론하고, 필요한 물건도 함께 만들었다. 체육대회는 경쟁보다 협동에 초점을 맞췄다. 아이들은 직접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무엇을 좋아하고 잘 하는지 알게 된다. 생각의 힘을 키우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맡은 일을 책임지는 법도 배워야 한다. 어른들의 역할은 아이들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일이다. _작가노트

발행처 :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미술관 | 발행인 : 설원기 | 편집인 : 최은주 | 편집장 : 김종길 | 기획·편집 : 최윤정, 이생강, 조두호 / 남선현 | 지원 : 최지원, 정수진, 이유림, 전유정 | 글 : 김종길, 최윤정, 조두호, 최지원, 장석주, 김성환, 김윤식 | 사진·자료 : 강애란, 김광우, 김윤식, 박홍식, 이억배, 이원석, 장석주, 홍선웅, 김종길, 이생강·전유정(윤석남), 임은옥, 초보학교 | 사진 촬영 : 박준식, 김윤식, 초보학교(이지원, 이의식) | 교정·교열 : 김종길, 남선현 | 디자인 : 베이스라인 | 인쇄 : 청산인쇄 | 수석큐레이터 : 김종길 | 큐레이터 : 최윤정, 이생강, 조두호 | 어시스턴트 큐레이터 : 이유림, 전유정 | 에듀케이터 : 최지원, 남선현, 정수진 | 외부 자문 : 고영직, 박설희, 윤석정, 이덕규 | 외부 협력 : 이준희(대중음악), 최연하(기록아카이브) | 총괄 : 경기도미술관(관장 최은주) | 경기도미술관 지원 : 학예팀(팀장 박우찬, 박본수, 김지희, 김윤서, 최혜경, 방초아, 강민지, 장남호, 김상은, 안진선, 윤난영, 박소현) / 기획운영팀(팀장 권영기, 정승희, 이지연, 이문희, 최기영, 장효진, 한정원, 정선희, 심길영) | 경기천년TF : 서정문(문화예술본부장), 조병택(문화사업팀장), 김성환(정책실장), 박우찬(경기도미술관 학예팀장), 황순주(지역문화팀장), 김영대(미디어마케팅팀장), 원준호(기획조정팀장), 김종길(경기도미술관), 최진호(문화사업팀), 윤가혜(문화사업팀), 이상민(문화사업팀), 성형모(문화사업팀), 박정호(지역문화팀), 임은옥(문화사업팀), 유상호(문화사업팀), 채지영(문화사업팀), 김범수(기획조정팀) | 공간디자인 : 다이아거널 씨츠 | 공간 구조물 제작 : 무늬만 커뮤니티, 오래우드 | 과정 아카이브 : 기억하는 용기(김진주) | 후원·협력 : (사)한국예총 경기도연합회, (사)경기민예총, 경기도문화원연합회, 경기도문화재단협의회, (사)경기도박물관협회, (사)한국작가회의, 경기도사이버도서관

· 이 신문은 경기도미술관이 “2018 경기천년 도큐페스타_경기도미술관 특별전 <경기 아카이브_지금>”의 전시 홍보를 위해 제작했습니다. 본 신문에 실린 글과 사진 등은 자료 제공자 및 경기도미술관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홈페이지 <http://ggma.ggcf.kr/> 에서 PDF 파일로 다운받아 볼 수 있습니다.

경기천년
도큐페스타

GYEONGGI
MILLENNIUM
DOCUFESTA

경기도미술관 특별전
경기 아카이브_지금,

GMoMA Special Exhibition
GYEONGGI ARCHIVE_NOW,



2018.09.10. 월요일 - 10.31. 수요일

경기상상캠퍼스 (구)임학임산학관

문의 031-296-1833~40 | <http://ggma.ggcf.kr>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로 166



근대 서지 자료 《신천지(新天地)》 1946년 5월호 표지

(이미지 제공: 홍선웅)

《신천지(新天地)》는 1946년 1월 15일자로 창간된 서울신문사 발행의 종합지로 1954년 9월 통권 68호까지 발행했다. 《신천지》는 해방 후, 6·25전쟁 전까지 나온 우리 잡지 중에서 가장 성공한 잡지로 꼽힌다. 발행부수는 최고 3만부를 넘었다고 한다.

“해방의 첫 선물로서 서울신문사 출판국은 삼가 독자 여러분 앞에 《신천지(新天地)》를 올립니다. 지극히 빈약한 선물인 줄 압니다만, 우리말 우리글에 굶주려 오셨던 3천만 동포 제위에게 어떠한 의미에서든 조금이라도 이바지함이 있다면 오직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_ 창간호 편집후기에서

주최 1000
경기천년 1018
2018

Global Inspiration
세계속의 경기도

경기도문화재단

주관 ggma 경기도 미술관

협력·후원

(사)한국예총 경기도연합회, (사)경기민예총, 경기도문화원연합회, 경기도문화재단협의회, (사)경기도박물관협회, (사)한국작가회의, 경기도사이버도서관